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

일시 2018.11.19.(월) 13:30~16:3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



주관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포럼 참석을 위해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빈과 청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기에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진로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이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지는 급속한 사회변화는 창의적이고 융복합 적인 사고를 갖춘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개인의 역량개발이 중요해지면서 진로체험,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진로교육 또한 계층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장애학생, 탈북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원 및 교육환경이 아직 미비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이야말로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아울러 진로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의 혁신,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설계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 확대뿐만 아니라, 진로교육 전반의 질을 제고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방안들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로교육 체계 확립을 통해 포용국가를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포럼 개최를 주관하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각계의 연구자 및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 또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로서 진로교육 발전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늘 관심 갖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승 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최은옥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국회 조승래 의원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병국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과 여러 선생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하고, 성장에 의한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한 대통령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행사는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진로교육이 더욱 촘촘하게 설계되어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진로체험과 창업체험교육 등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어 가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2010년 ‘진로교육 종합계획’, 2016년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최근의 사회적 변화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며칠 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진로교육정책을 점진적,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면, 수요자에게 제공만 하는 진로교육을 넘어 아이들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힘, 즉 진로탄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중이며 학교안팎의 모든 아이들이 진로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으로 교육콘텐츠 확산, 창업경진대회 확대, 진로교육정보망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사뿐만 아니라 소년원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진로교육 관계자들이 전문성을 함양해나갈 수 있도록 교원용 온·오프라인 연수를 공유하는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교육, 학생 및 청소년의 창업체험교육 등 현장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로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며, 더욱 다양한 진로교육을 펼쳐나가기 위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자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학교,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모든 관계자들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 학교교육의 경계를 넘어 학교안팎의 모든 아이들이 진로교육의 기회를 마주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방향과 의견을 나누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비롯하여 현장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로교육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최 은 옥**

인사말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2019년 예산안 관련 국회연설에서 하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깊어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포용사회, 포용국가’ 실현은 현 정부의 비전이자 현실적 화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님실 및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과 함께 제11차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회일정으로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조승래 의원님과, 누구보다 소외계층 진로교육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김정숙 박사님과 수원시청의 임정완 선생님, 그리고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경인교대 서우석 교수님과 패널로 수고해 주실 경남교육청 김민환 장학사님, 한국교원대 선혜연 교수님, 국립특수교육원 금미숙 교육연구관님,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김현철 본부장님과 김기현 센터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포용’과 ‘혁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학교교육도 ‘포용’과 ‘혁신’을 위해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질 좋은 교육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 이른바 소외청소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입시위주 교육에서 학생 개인의 꿈과 잠재역량 개발을 돕는 진로교육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중도입국, 또는 학교부적응을 겪고 있는 이른바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포용과 혁신을 통한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으로 발전하려면 이들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낮은 진로포부’나 ‘높은 진로장벽’을 극복하도록 돕는 진로탄력성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진로탄력성 회복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는 개인의 인권 신장이며, 생산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심신이나 이주배경이라는 불안한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학업부적응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꿈을 키우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진로교육 이전에 교육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초저출산으로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는 현 상황에서는 ‘단 한 명의 청소년도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들의 바른 성장과 자립을 돕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공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진로교육의 핵심인 직업세계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교 밖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로교육 우수 실천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지역사회와의 성공적인 연계 내지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들이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잠재역량 개발과 그것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활용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북유럽 선진국의 학교나 선생님들이 평균이상의 역량을 보이는 학생들보다 평균이하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교육도 입시제도 논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회에 나가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인사말로 가름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 11월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송 병 국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사회자/발표자
13:30~14:00 30'	■ 등록	
14:00~14:05 5'	■ 개회식 국민의례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05~14:10 5'	■ 주요 참석자 소개	
14:10~14:20 10'	■ 인사말 조 승 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 은 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송 병 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4:20~15:20 60'	[주제발표 I]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방안	김정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II]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추진 사례	임정완 수원시청 교육정책팀장
15:20~15:30 10'	■ 휴 식	
15:30~16:20 50'	■ 종합토론 - 패널1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패널2 금미숙(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 패널3 선혜연(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 패널4 김민환(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좌장 서우석 경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16:20~16:30 10'	■ 마무리 및 폐회	

목 차

발표

1.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방안 1
김정숙_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추진 사례 33
임정완_수원시청 교육정책팀장

토론

1.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방안 ‘토론문’ 51
김현철_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2.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방안 ‘토론문’ 54
금미숙_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3.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추진 사례 ‘토론문’ 57
선혜연_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4.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추진 사례 ‘토론문’ 60
김민환_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방안

김 정 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방안¹⁾

1. 들어가며

2015년 6월 22일 진로교육법의 제정으로 진로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였고, 진로전담교사를 중·고등학교에 배치하였으며, 2013년에 시범 적용된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교육부, 2016. 4. 5.).

그런데 진로교육법의 제정으로 진로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생 내부 집단별 배경과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지원정책이 마련되지는 못했다. 특히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진로설계와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2016~2017년 동안 특수교육대상학생, 탈북학생,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지도 매뉴얼이 개발 보급되었고(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a, 2016b, 2016c, 2016d), 담당교사의 진로지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진로상담,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학생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교육부, 2016. 4. 5.).

소외계층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정책은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차별 요소를 고려할 때 현재의 불리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은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소외계층을 진로교육법 및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다문화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특히 활성화 방안 중에서도 진로교육 환경 조성 관련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1) 이 원고는 김정숙, 연보라(20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내용을 요약 보완한 것이다.

다. 이를 위해, 우선 소외계층 집단별 현황과 특성, 진로교육 요구수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한계점 및 개선방안²⁾을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소외계층 집단별 현황 및 특성, 진로교육 요구

1) 특수교육대상학생

① 현황 및 특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학생(특수교육대상자)은 다음①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②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③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④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⑤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⑥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⑦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⑧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⑨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⑩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교육받고 있다.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지적장애학생이 48,747명(53.7%)으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 12,156명(13.4%), 지체장애 10,439명(11.5%) 순으로 많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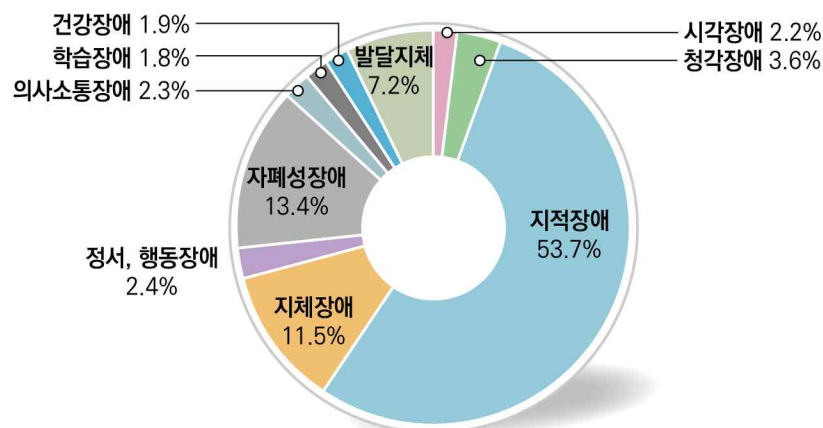


그림 1.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별 현황

출처: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통계」. p. 3.

2) 한계점 및 개선방안은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실시했던 전문가 자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48,848명(53.8%)이 재학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이 특수학교(28.5%), 일반학교 일반학급(17.2%) 순서로 높다(교육부, 2018: 4).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70%인 64,443명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학교보다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 배치율이 높은 것은 통합교육 확대에 따라 일반학교에 배치를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상대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들은 경증 장애학생에 비해 진학과 취업이 어려워 졸업 후 성인기 전환 준비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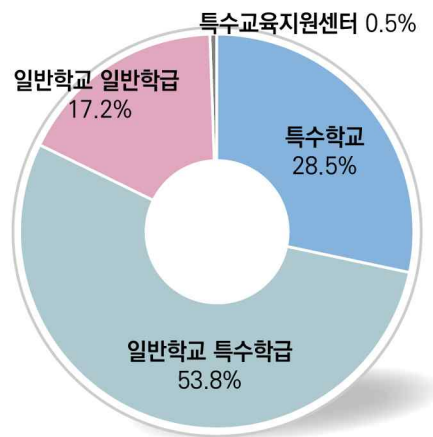


그림 2.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출처: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통계」. p. 4.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사회·환경적, 인지적, 행동적, 학습적, 발달적 특성이 상이하지만(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a: 24~26), 심리적 특성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a: 25).

〈표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특성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 부정적 자아개념 - 불안감, 긴장감, 공포감 등으로 위축된 성격 - 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 - 의존적 성향 - 내성적 성격 - 본인의 주관적 자아와 타인의 기대적 자아간 불일치로 인한 혼란	- 자기중심적, 경직성 - 불안정한 성격 - 욕구불만, 반항적 성격 - 부모와의 관계가 성격에 영향	- 부정적 자아개념 - 고정된 성격 - 실패와 좌절 경험에 따른 소극적 성격 - 낮은 자존감 - 상황적, 외부단서들에 의존하는 외부 지향적 성향	- 부정적 자아개념 - 정서불안, 과민함, 열등감, 자발성 부족 - 타인 및 자신의 감정상태 파악 어려움 - 낮은 자존감 - 높은 방어기제	- 슬픔, 우울함, 자기비하 등 부정적 감정 - 욕구불만, 냉담, 공격적, 퇴보적 성격 - 높은 강박관념 - 타인과의 접촉 회피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a).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p. 25.

② 진로교육 요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주요 진로고민은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29.5%)였으며, ‘나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27.2%)가 그 다음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a: 40).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목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독립적·상호의존적 일상생활 능력 함양(73%),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 습득을 통한 취업(58.3%), 일의 세계인식 및 일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가치관 형성(25.0%)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홍정숙, 2015: 284). 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 외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일에 대한 가치관 정립 등 진로와 자립에 대한 기초적인 역량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

① 현황 및 특성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복지지원법」³⁾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⁴⁾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 유형을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다문화청소년, 국제결혼가정에서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재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북한출생인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에서 출생한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 등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주 경험을 지닌 청소년이다. 이와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은 넓은 범위에서 본인 및 가족이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나 그 의미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이주의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이 발생함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18. 8. 6. 인출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18. 8. 6. 인출

〈표 2〉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 유형

구분	설명
다문화(가족)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주로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
중도입국청소년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에서 데려온 청소년 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재입국한 청소년 - 그 외에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 등을 폭넓게 포함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⁵⁾ 제2조에 따른 외국인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 -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⁶⁾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 - 넓은 의미에서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북한 출신으로 북한 혹은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모두 포함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

출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http://www.rainbowyouth.or.kr/index/rainbowyouth.php>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을 매년 발표해오고 있는데, 이때 외국인주민 자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를 의미한다(행정안전부, 2017. 11. 16.).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를 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 탈북청소년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을 제외하고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자녀의 수는 201,333명으로, 대부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 자녀(95.1%)에 해당되며, 일부 귀화하거나 외국국적을 보유한 경우(4.9%)도 존재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미취학 아동(56.4%)이며, 초등학생이 28.2%, 중·고생이 15.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행정안전부, 2017. 11. 16.).

〈표 3〉 외국인주민 자녀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합 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333	102,961	98,372	9,874	4,683	5,191	191,459	98,278	93,181

출처: 행정안전부(2017.11.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p. 62.

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 2018. 8. 6. 인출

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18. 8. 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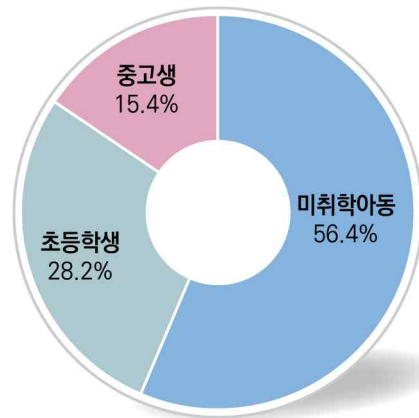


그림 3.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17.11.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p. 65.

이주배경청소년의 재학 현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다문화학생 현황과 탈북 학생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다문화학생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뿐 아니라 외국인가정 자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2012년 46,954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그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비율의 가장 높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7. 8. 31.). 전체적으로 국내출생의 다문화학생 비율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최근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포함하여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외국인가정 자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국내출생	중도입국	
2017	109,387	82,733	15,945	10,334	375	89,314	7,792	12,281
2016	99,186	73,972	15,080	9,816	318	79,134	7,418	12,634
2015	82,536	60,162	13,827	8,146	401	68,099	6,261	8,176
2014	67,806	48,225	12,506	6,734	341	57,498	5,602	4,706
2013	55,780	39,360	11,280	4,858	282	45,814	4,922	5,044
2012	46,954	33,740	9,627	3,409	178	40,040	4,288	2,626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2) 국제결혼가정 자녀 :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3) 국내출생 자녀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4) 중도입국 자녀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5) 외국인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출처: 교육부(2017.8.31.), 「2017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 9.

부모의 출신 국적별로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중국, 필리핀, 중국(한국계), 일본의 순으로 상위 5개 국적의 비율이 82.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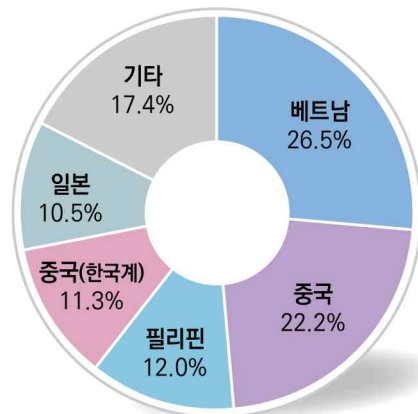


그림 4. 다문화학생 부모 국적별 현황(2017년)

출처: 교육부(2017.8.31.). 「2017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 10.

* 기타에는 태국, 몽골, 러시아, 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이 포함됨

다음으로 탈북학생 현황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북한출신으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입국한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탈북학생의 수는 2011년에 1,681명에서 2017년에는 2,53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2011년 60.7%에서 2017년에는 40.5%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탈북학생 가운데 중국 등 제 3국 출생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수가 북한출생 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17. 8. 2.).

〈표 5〉 탈북학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학교급			출생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북한출생	중국 등 제3국 출생
2017	2,538	1,027	726	785	1,101	1,437
2016	2,517	1,143	773	601	1,200	1,317
2015	2,475	1,224	824	427	1,226	1,249
2014	2,183	1,128	684	371	1,204	979
2013	2,022	1,159	478	385	1,182	840
2012	1,992	1,204	351	437	1,284	708
2011	1,681	1,020	288	373	1,073	608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7.08.02.). 「2017년 탈북학생 주요통계 자료」. p. 2. 재구성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세부 유형 집단에 따라 성장배경이 상이하고, 집단별로 발달적 특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은 크게 자신이 직접 이주한 경우인지, 부모님이 이주한 경우인지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이주배경청소년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출생의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직접적인 이주경험을 겪지 않았으며, 일반 청소년들과 성장배경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b: 27). 다만,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일반 가정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의 학업이나 교우관계, 심리적 영역 등 이들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연보라, 2017: 128).

한편 본인이 이주경험을 지닌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고, 이는 학업성취 저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b: 26; 최경자 외, 2011: 4). 또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문화적 차이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박혜준, 2008). 특히 탈북청소년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입국 전 장기간의 학습공백으로 기초학력 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c: 23-24).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이주배경으로 인해 차별과 청소년기 자기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많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b: 25-27;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c: 23; 이진석, 2014). 전술한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

영역	내용	해당 집단
학업	• 낮은 학업성취, 기초학력 부족 (탈북청소년: 학습공백 발생)	공통
심리	• 낮은 자존감, 우울, 스트레스 (탈북청소년: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	공통
사회, 문화	• 차별과 편견 경험 •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 문화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 청소년 탈북청소년
정체성	• 자기 이해 부족 및 정체성 혼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언어	• 한국어 능력 부족 (탈북청소년: 남북한 언어 차이)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 청소년 탈북청소년
가정환경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가정 다수 • 부모의 한국사회 이해 부족 • 문화차이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경험	공통

② 진로교육 요구

양계민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의식 수준이 낮고, 정보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벽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는 진로관련 지지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프로그램의 요구도는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양계민 외, 2016: 309).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53.7%), 직업기술훈련(42.0%), 학습지원(41.5%), 일자리 소개(39.0%), 외국계 부모나라 언어교육(36.2%)의 순으로 진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았다(여성가족부, 2016: 484). 이는 2012년 조사결과와도 유사한데, 특히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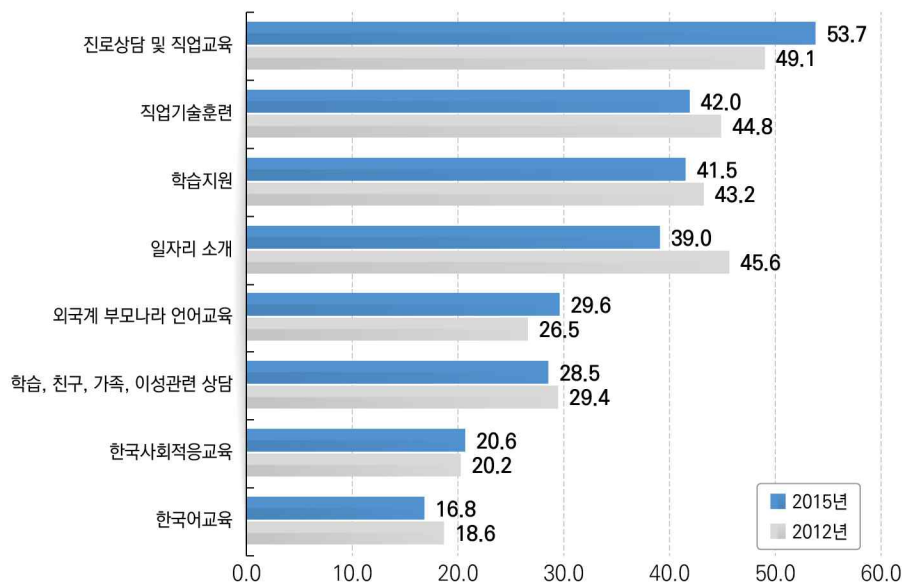


그림 5.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요구(2012, 2015) (단위: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p. 484. 재구성.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향후 필요한 지원으로 학습 및 학업(공부) 지원,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진로(진학 및 취업)상담 지원 순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남북하나재단, 2016: 17). 진로상담에 대한 지원 요구는 3위에 머물렀으나 2014년 대비 이에 대한 지원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출생과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 모두에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6: 17,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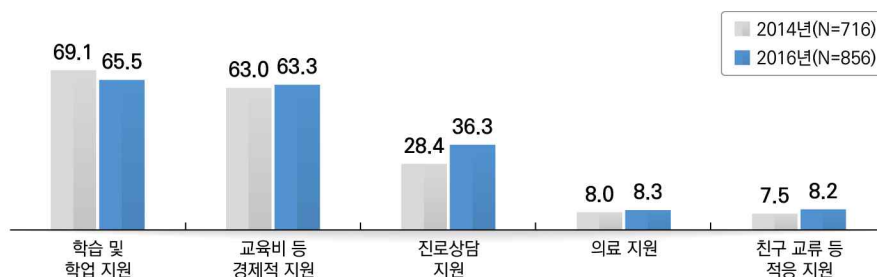


그림 6. 현재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에게 향후 필요한 지원 (2014, 2016) (단위: %)

출처: 남북하나재단(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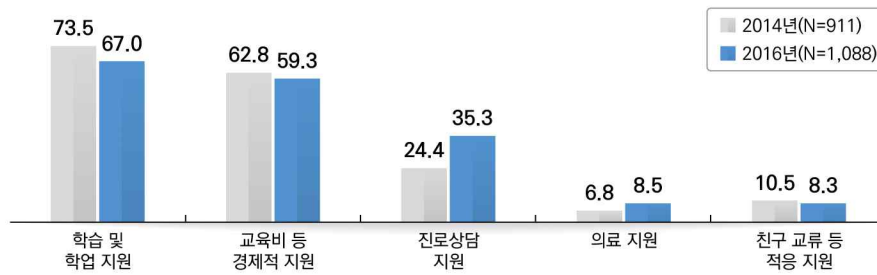


그림 7. 현재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향후 필요한 지원 (2014, 2016) (단위: %)

출처: 남북하나재단(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p. 39.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의 주요 진로고민을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계획하고 설정하는 데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b: 42;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c: 43).

〈표 7〉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의 주요 진로고민

(단위: %)

내용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33.1	30.0
나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31.1	31.6
나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15.9	16.1
나는 진학 혹은 취업을 위하여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4.4	11.6
나는 늘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	3.7	5.2
나는 학교적응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1.7	1.9
기타	0.1	3.5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b).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p. 42.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c). 탈북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p. 43.

3)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① 현황 및 특성

학교부적응 학생은 학교 안에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으로, “정규 학교교육의 제도나 법규 등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기대 및 전망과 일치하지 않거나 학교교육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이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미달되는 학생”과 “가정, 사회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을 의미한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9~10).⁷⁾ 이해영 외(2013: 212)의 연구는 학교

7)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의 보고서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부적응의 결과로서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를 가정할 수는 있으나, 학교부적응 청소년은 ‘학교’내에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부적응 유형을 <표 8>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이해영 외(2012: 41)의 연구에서는 <표 9>와 같이 학교부적응 학생의 특성을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 즉, 수업 및 학업 태도가 좋지 않고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우며, 교사나 동료 학생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학교 교칙에 대한 위반 및 폭력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정서적으로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공격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표 8> 학교 부적응 유형

유형	학교 부적응 현상
수업 학업 관련 부적응	기초학력 부진, 소극적 수업 참여
정서적 부적응	무기력, 의욕 상실, 낮은 자존감, 우울 등
인간관계 부적응	교사관계 부적응, 친구관계 부적응
규칙 위반형 부적응	강압적 통제에 대한 저항, 외모 관련 규칙에 대한 저항
공격성 부적응	폭행, 따돌림, 금품 갈취, 학교 기물 파손 등
획일적 학교제도 거부형	자발적 중퇴, 대안학교 선택 등

출처: 이해영 외(2013).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II)」, p. 212.

<표 9> 학교부적응 학생의 특성

영역	내용
수업·학업	낮은 학업성취, 학습의욕과 흥미 상실, 수업 참여가 어렵고 집중하지 못함, 수업(학습) 태도가 좋지 않음 등
관계	교사를 멀리함, 교사의 지시 무시, 동료 학생의 놀림과 거부, 괴롭힘, 왕따, 친구를 못 사귀 등
규범	무단지각, 무단결석, 공격성, 학교 교칙 위반, 폭력 등
정서	낮은 자존감, 우울감, 불안, 공격성 등

출처: 이해영 외(2012).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I)」, p. 41.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⁸⁾ 윤철경 외(2017)에 따르면,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2015년 기준 405,849명으로 추산되었다. 2012년 이후부터 그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405,849명을 기준으로 볼 때, 학교급별, 성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표 10> <표 11> 참조).

를 그만 둔 청소년을 지칭하는 ‘학교 밖 청소년’ 개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하기로 한다.

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18. 8. 6. 인출.

〈표 10〉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구분		인구 수				비고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학 령 인 구	주민등록상 학령인구(A)	7,126,098	6,862,319	6,650,243	6,433,576	2015.12.31. 기준 - 안전행정부(2015).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외국인 자녀 중 학령인구(B)	13,372	14,780	23,158	19,266	2004~2015년간 누적된 학령인구 순입국자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04~2015) 원 자료 활용
학 생 수	교육통계상 학생 인구 (C)	6,715,622	6,460,545	6,262,541	6,061,849	2015.4.1. 기준 재학생수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교육통계연보.
	순 학업중단자 수(D)	29,895	26,044	21,413	19,523	2015.4.~2015.12. 9개월간 발생한 학업중단자 수(추정치)
	고등학교 조기졸업자 수(E)	-	-	3,610	4,667	2013년 만 14세 이하, 2014년 만15세 이하, 2015년 만16세 이하 고3학생 중 졸업자 수(추정치)
학교 밖 청소년 수(F)		453,743	442,598	428,663	405,849	$F=(A+B)-(C-D+E)$

출처: 윤철경 외(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I」. p. 374.

〈표 11〉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별, 성별 비율(2015년 기준)

(단위: 명(%))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405,849(100.0)							
국제이동 (내국인)	국제이동 제외 학교 밖 청소년						국제이동 (외국인) 학교 밖 청소년
	초		중		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순 출국 학생수 55,383(66.9)	17,031 (60.1)	11,298 (39.9)	35,792 (53.0)	31,687 (47.0)	135,610 (61.0)	86,880 (39.0)	외국인 순입국자-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수 (다문화청소년)
귀국 후 미복교자 27,336(33.0)	28,329(8.9)		67,479(21.2)		222,490(69.0)		
82,719(20.4)	318,298(78.4)						
							4,832(1.2)

출처: 윤철경 외(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I」. p. 379.

*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전체 수(405,849명)는 국제이동 82,719명과 국제이동 제외 학교 밖 청소년 318,298명에 국제이동 외국인 중 학교 밖 청소년 수(추정치)가 포함된 숫자임(윤철경 외, 2017: 377 참조).

학교 밖 청소년의 공통적 특성은 학교를 그만 둔 후의 미래에 대한 불안, 장래희망의 부재, 무기력함 등 목표의 부재 현상을 보이며, 생활습관이 불규칙적이고, 가정해체 또는 부모의 방임 등

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지지환경이 취약하다.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심한 감정 기복 등 상담관계 형성이 어려운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오혜영 외, 2012: 76).

〈표 12〉 학교 밖 청소년의 공통적 특성

영역	내용
목표의 부재	미래에 대한 불안, 장래희망의 부재, 욕구의 잦은 변동, 무기력함,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의미 상실
불규칙한 생활습관	시간약속을 지키지 못함, 율배미숙, 숙식의 불안정, 부모의 방치, 통제해줄 수 있는 울타리에 대한 양가감정
빈약한 지지환경	가족 구성원 결손, 가족의 기능적 결손, 빈약한 사회적 지지
상담관계 형성의 어려움	아군과 적군 구별의 동물적 감각, 주변 어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신의 이야기를 개방하지 않음, 공감능력 결여, 상담자를 테스트, 감정 기복이 심함

출처: 오혜영 외(2012). 「학업중단청소년 유형별 상담 매뉴얼 개발」, p. 76.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하위유형으로 분류된다. 윤철경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월별 경험사건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5개 집단으로 구분한 바 있다. 경험사건에는 첫째, 학업관련 경험 ①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휴학/방학 포함), ② 대안학교에 다님(인가/비인가 모두 포함), ③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④ 대학입시 공부를 함(대입학원 등), ⑤ 대학에 다님(휴학/방학 포함)), 둘째, 직업 관련 경험(⑥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⑦ 자격증 및 취직시험(공무원 시험 등) 준비, ⑧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셋째, 무업(⑨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넷째, 비행 관련 경험(⑩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⑪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냄, ⑫ 보호관찰을 받음(보호관찰소), ⑬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⑭ 소년원에서 생활함)이 포함된다. 마지막은 상술한 네 가지 유형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혼재되어 있는 경우이다(윤철경 외, 2016: 31~32).

〈표 13〉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 사건 분류를 통한 유형 구분

경험 유형	해당 경험
학업	학업, 학업+직업, 학업+니트
직업	직업, 직업+니트
무업	니트
비행	비행, 비행+다른 한 개 유형, 비행+다른 2개 유형, 비행+다른 3개 유형
무정(혼재)	위 4개 유형 모두 해당 없음, 학업+직업+니트

출처: 윤철경 외(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pp. 31~32.

② 진로교육 요구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내용들은 일부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진로요구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요구 조사는 일부 수행된 바 있다. 최인재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후에 겪고 있는 어려움(1순위)에는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가 4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내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28.8%), 부모와의 갈등(26.3%)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 찾기의 어려움은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다음으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학교를 그만 둔 후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1순위)

	선입견, 편견, 무시		진로 찾기 어려움		부모와의 갈등		없음		일을 구하기 어려움		의욕 없음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도움 받을 곳이 없음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n=4,691)	2,012	42.9	1,351	28.8	1,232	26.3	1,210	25.8	935	19.9	923	19.7	676	14.4	556	11.9

출처: 최인재 외(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 138.

상술한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그 중 1순위부터 6순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검정고시 지원(M=2.87), 건강검진 제공(M=2.82), 진로탐색 체험(M=2.78), 직업교육훈련(M=2.76), 진학정보 제공(M=2.75), 각종 질병 치료(M=2.72)의 순서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진로와 직업 관련 정책들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 필요성 정도(1순위, 4점 만점)

응답자의 특성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n=4,691)	검정고시 지원	건강검진 제공	진로탐색 체험	직업교육 훈련	진학정보 제공	각종 질병 치료
	2.87(0.966)	2.82(0.903)	2.78(0.944)	2.76(0.951)	2.75(0.966)	2.72(0.940)

출처: 최인재 외(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 150.

최인재 외(2015)의 연구결과 중 면담조사 결과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진로를 결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취득 및 진로준비에 대한 요구가 큰 반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진로발견 및 탐색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재 외, 2015: 201).

3.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교육 정책 현황, 한계점 및 개선방안

1) 특수교육대상학생

① 정책 현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정책 현황을 관련 법,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진로 교육 관련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⁹⁾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 관련 정책은 「특수교육진흥법」(1977~2008)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1977~2008)에서는 직업교육, 전공과 설치¹⁰⁾, 진로교육에 관한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진로·직업교육이 통합되어 그 내용과 범위가 제시되어 있고(제2조),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 산하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또한 전공과의 설치 목적을 진로와 직업교육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24조)한 것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표 16〉 특수교육 관련법 중 진로·직업교육 내용

종류	내용
특수교육 진흥법 (1977. 12.31. 제정 2008. 5. 폐지)	- 제20조(직업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 제21조(전공과의 설치) ①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류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2조(진로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2008. 6. 12. 제정)	- 제2조(정의)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9) 이 내용은 박희찬(2016)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의 변천'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10)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이후 과정(수업연한 1년 이상)을 의미한다.

종류	내용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8. 8. 2. 인출

현재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이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진로·직업교육 정책 중(〈표 17〉 참조)에서, 특수학교 학교기업 설치·확대 정책은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일반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민호·김삼섭, 2010). 또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통해 현장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의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훈련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통합된 장애학생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수행할 수 있었다(박영근·윤형진, 2015). 전공과의 확대로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을 심도 있게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일자리, 복지 일자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전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경험 확대 및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게 한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박영근·윤형진, 2015).

〈표 17〉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종류	내용
제1차* (1998~2002)	• 장애인 교육/복지/고용 부처 합동으로 장애인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 장애정도 및 유형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과정 운영 • 첨단 직업훈련실 설치: 노동부에서 특수학교 전공과 20개 지정, 훈련필수시설, 훈련장비 및 공구, 실습재료비 등 지원
제2차 (2003~2007)	•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전환교육 강화 • 직업교육, 직업훈련, 취업알선 연계체제 구축 및 운영 • 학교교육과정에서 성인생활에 필요한 직업 및 전환교육 서비스 제공 - 개별화전환계획 모형 개발
제3차 (2008~2012)	•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체제 구축 -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공동 실시, 교수·학습 자료 공동 개발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맞는 현장중심 직업교육 -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일반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 중심 직업교육 확대 • 담당자의 자격기준 강화, 연수 확대, 지역사회 중심 직종개발 및 취업 알선 강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2009)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특수학교 학교기업 설치·확대 •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직업평가, 지원고용 지원(공단)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을 학칙에 정하여 수업 인정 •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팀 설치

종류	내용
제4차 (2013~2017)	- 특수학교학교기업 내실화,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연차 확대 - 전문대학과 연계한 취업·창업지원 확대: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각급학교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 복지 일자리 사업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유관기관 간 협력 운영 - 진로·직업교육 성과지표 적용, 취업률 40% 달성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강화방안 (2015. 1. 6.)	- 지역사회 연계 취업·창업교육 지원 확대: 위탁교육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취업·창업교육 확대, 학부모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 특수학교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확대, 운영 내실화 - 취업·창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전공과 확대 - 유관기관 연계 일자리 발굴 및 확대: 관계부처 간 협력체제 체계화,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기업체와 협력 구축, 문화체육 일자리 발굴 - 성과관리 강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16~2020)	- 사회적 배려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 배치유형별, 학교급별 특성 감안한 진로정보 제공 -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기회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제5차 (2018~2022)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자유학년제 확대 추진 - 진로교육 집중학기(년) 도입, 실무체험 중심 진로·직업교육실 조성 -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업평가 체계 구축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방안 (2018. 3.)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실시 - 학생 신분으로서 3개월 이내(수업일수 1/3범위 이내) 기간 참여 -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채용시기 탄력적: 동계방학 전 취업 가능) - 직업능력평가비 및 현장 실습비 지원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확대방안 (2018. 7. 2.)	- 대학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맞춤 컨설팅, 현장중심 직무훈련 실시 - 지역사회 중심(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보건복지부) 연계 일자리,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위탁교육 등 - 고용 확대 기반 구축: 원스톱 협의체 운영,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확대

* 제1차 계획은 장애인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에서 장애인 교육 분야로 발표되었으며, 제2차 5개년 계획은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으로 발표됨.
출처: 제1차-제2차 계획은 박희찬(2016).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의 변천. pp. 63~65 참조; 교육과학기술부(2008. 8.).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 교육과학기술부(2009. 12.).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교육부(2013. 8.).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015. 1. 6.).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을 향상을 위한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강화 방안; 교육부(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6~2020); 교육부(2017. 12.).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 팀(2018.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 교육부(2018. 7. 2.). "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늘린다." 교육부 보도자료.

-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수학급 설치 일반고등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을 위해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 제공
- ※ 특수학교 학교기업: 장애학생 현장실습 확대 및 취업을 향상을 목적으로 특수학교 내에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직업훈련실을 설치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 제공
- ※ 각급학교 내 장애인일자리 & 희망일자리(고용노동부): 교육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선 및 장애인의자립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각급학교 내 장애학생이 수행 가능한 직무에 배치하여 직업교육 실시
- ※ 특수교육복지일자리(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한 유형. 특수교육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고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이 사서보조, 급식지원, 교무보조 등 직무 수행)

② 한계점 및 개선방안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진로·직업교육 정책이 체계화되어 과거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이 향상되는 등의 성과가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직업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듯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역시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특수학교에서는 교과(군)별 3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편성·운영이 가능하므로 학생의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진로·직업교육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진로탐색과 진로준비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교육 지원은 주로 특정 장애영역(발달장애) 및 장애 정도(경증)에 편중되어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생애단계별 맞춤형, 개별화 진로교육 목표가 수립되고 진로정책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교육 개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진로교육협의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다양한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고용기관과 보호 및 복지기관들이 존재하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 결정 및 방향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관간의 역할 분담과 조정이 필요하다.¹¹⁾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들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개선될 때,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체험, 진로실습, 고용 문제 등이 개선될 수 있다.

2) 이주배경청소년

① 정책 현황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6-2020)’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다문화학생 및 북한이탈주민학생 등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진로상담(지도) 매뉴얼 개발·보급,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학부모를 위한 진로정보 제공 강화,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기회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북한이탈주민학생의 경우 원활한 정착지원을 위해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하나원에 재원 중인 학부모 대상 맞춤형 진로교육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11) 2018년 4월,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6개 기관은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확대, 일자리 공동 발굴 및 확대,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 장애인 고용 인식 제고 공동 노력 등을 추진하기로 하여 그 성과가 기대된다.

〈표 18〉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세부과제	내용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 다문화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등 진단 및 처방을 위한 진로상담(지도) 매뉴얼 개발·보급('16)
		• 담당 교사의 진로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진로상담·진로정보 제공 강화('16)
		• 학부모의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진로교육 관련 소식지(드림레터) 및 학부모를 위한 진로정보 앱('맘에 쏙 진로') 별도 코너 신설('17)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상담, 진로체험 기회 제공('16)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학생	• 북한이탈주민학생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위해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16) - 하나원에 재원 중인 학부모 대상 맞춤형 진로교육
	다문화 학생	• 이중언어 능력·문화 등 다문화학생의 장점을 살려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진로·진학상담자료 개발·보급('16) • 다문화학생의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 브릿지 사업 강화*('16년 17개 사업단) * 언어, 수학과학 등에 잠재능력을 가진 다문화학생에게 특별교육 프로그램 제공

출처: 교육부(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6-2020).' pp. 14-15.

이와 더불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교육과 관련한 정책들은 대상 집단별 관계 부처의 지원계획 내용에 각각 포함되어 있는데, 탈북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교육부)'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을 통해 진로지원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탈북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간에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진로교육 관련 매뉴얼(학교진로상담 매뉴얼)이 개발 보급되었고, 멘토링 사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잠재능력 개발 프로그램(HOPE, 글로벌브릿지)이나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여 선별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 폴리텍다솜학교와 한겨레 중고를 통해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의 교육제도나 취학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진로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표 19〉 탈북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사업

영역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내용	담당부처
매뉴얼	• 탈북학생 대상 진로교육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학교진로상담(지도) 매뉴얼, 진로직업교육 매뉴얼 등	교육부
맞춤형 멘토링	• 탈북학생 대상 맞춤형 멘토링 지원 - 대학생 선배·또래 멘토, 재능기부자 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부, 통일부
잠재능력 개발 프로그램	• 탈북학생 잠재역량 강화 프로그램(HOPE)운영 - 인문·과학·수학, 예술·체육, 직업 분야에서 학생·전문가 간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진로캠프 등 지원	교육부
리더양성 프로그램	•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 한·미 취업연수 프로그램, 호주 어학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OKF공공외교단 캠프 등 참여 지원	교육부, 통일부
진로직업캠프	• 일반학교 재학생 대상 진로·직업캠프 실시 - 시도교육청별 맞춤형 진로·직업캠프 실시	교육부

영역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내용	담당부처
학교 지원	- 탈북학생 특성화학교 진로·직업교육 지원 - 한겨레중고 진로·직업교육 시설 및 진로직업교육프로그램(9개 분야) 운영	교육부, 통일부
진학상담 및 학과박람회	탈북청소년 진로진학상담 및 학과박람회 운영	통일부
교육과정 개설 운영	- 탈북대학생 대상 예비대학과정 개설 운영 - 대학교육 이수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지원 제공	통일부
학비 지원 및 특례입학	- 학비 지원 및 특례입학 허용 - 대학 진학 시 정원 외 특례입학, 대학등록금 지원	통일부
부모교육	- 하나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실시 - 학교 선택, 교육제도, 취학절차, 부모 역할 등 진로교육 실시	교육부, 통일부

출처: 교육부(2017. 3. 24.).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발표, p. 2.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b). 탈북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 인천광역시교육청(2014a). 탈북 중학생 진로·직업교육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2014b). 탈북 고등학생 직업교육 매뉴얼; 통일부(2018. 4. 2.). 제2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수립(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pp. 17~22.; 남북하나재단(2017.6.2.). 2017년 탈북청소년 진학상담 및 학과박람회 안내문.

이외에도 탈북청소년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일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캠프가 실시되고 있으며, 통일부를 주축으로 탈북청소년 진로진학상담 및 학과박람회를 개최하고, 대학진학 과정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해 예비대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출생지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학 진학 시 특례입학 및 학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담당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멘토링 이외에도 원격영상으로 다문화영역 롤모델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지개 Job아라’ 및 ‘내일을 잡아라’ 등의 진로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탈북청소년도 일부 대상에 포함되어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과정,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그 밖에 다문화청소년 중심의 진로체험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진로활동실 확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0〉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사업

영역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내용	담당부처
매뉴얼	다문화학생 대상 학교진로상담(지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육부
교원 역량강화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연수 실시	교육부
맞춤형 멘토링	대학생과 연계한 기초학습, 진로지도 다문화멘토링	교육부
잠재능력 개발 프로그램	- 글로벌브릿지를 통한 우수 다문화학생 발굴 및 교육 - 다문화학생의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리더양성 프로그램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인턴 활성화	외교부 KOTRA·
진로 멘토링	- 다문화 진로탐색을 위한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운영 - 다문화영역 롤모델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원격영상 멘토링	교육부

영역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내용	담당부처
진로 프로그램 및 진로체험	• ‘무지개 Job아라’ 프로그램 운영 (진로탐색, 진로설계과정) •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 운영(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정) • 권역별 거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진로체험처 발굴·확대 • 학교 내 진로활동실 확충	여성가족부, 교육부
학교 지원	• 직업교육훈련기관(한국폴리텍대속학교)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 일반고 진학 다문화학생에 대상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교육지정기관 운영 • 다문화청소년 취업사관학교(내일이룸학교) 운영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가부
부모교육	• 학부모 진로관련 안내자료 발간 - 중도입국자녀 학부모 대상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	교육부

출처: 교육부(2018. 2.).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 6.; 여성가족부(2018.3.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pp. 19-22.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을 위해 다양한 관계부처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집단별로 살펴보면 탈북청소년의 경우 교육부와 통일부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한계점 및 개선방안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직업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들이 연관되어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진로·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범부처 차원의 공감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리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교육 정책 사업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정책지원 규모 및 예산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여건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직업교육 정책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먼저,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교육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업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유사한 정책과 사업들이 중복 운영되거나 지역사회 내 자원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교육은 통상적으로 낙인 및 역차별 문제를 초래한다.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이 결핍되고 부족하다는 편견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은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집체식 교육, 일회성 및 이벤트성 체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3)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① 정책 현황

우선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진로·직업 정책에는 Wee 프로젝트와 위탁형 대안학교·대안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Wee프로젝트의 주요 지원 대상에는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포함된다. Wee프로젝트는 3단계 안전망 구축을 전제로 하는데, 세 가지 안전망에는 1차 안전망으로 단위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 2차 안전망인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Wee 센터, 3차 안전망은 시도교육청 차원에 설치된 Wee 스쿨이 포함된

다.12)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의 3단계 안전망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 및 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들은 다양한 상담, 진로개발 및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안학교 유형에는 공교육제도에 편입된 인가형 대안학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정규학교에서 위탁한 학생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위탁형 대안학교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이혜영 외, 2013: 131). 위탁형 대안교육은 3~5일 또는 2주 정도로 운영되는 단기 위탁과 1개월~3개월 또는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장기 위탁으로 구분된다. 단기 위탁의 경우, 상담, 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위탁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 위탁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된다(이혜영 외, 2013: 131~132).

단기 위탁교육은 대안교실이나 대안교육시설, Wee센터,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며, 장기 위탁교육은 지역의 평생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경우에 따라서는 Wee스쿨, 공립형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실 등에서 이루어진다(이혜영 외, 2013: 132~133).

〈표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진로·직업지원 내용

내용
•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 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21〉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보다는 주로 직업체험, 직업훈련 등 취업에 초점을 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술 습득과 직업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 작업장 활성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내일이룸학교간 연계를 통해 전문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내일이룸학교 운영 활성화, 민관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학업, 직업, 무업, 비행, 은둔형)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 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Wee 안내내용. <http://www.wee.go.kr/home/intro/intro02001v.php>에서 2018년 8월 9일 인출.

의 직업지원 사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 자립지원 및 건강검진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직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원 사업

종류	내용	담당부처
내일이룸 학교	•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제공→자립역량 제고→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 • 2018년 현재 전국 16개 학교 지정 운영 • 기계가공조립, 간호조무사과정, 바리스타, 뷰티아티스트양성과정, 조리사과정, 트리밍3급과정/반려동물관리사, 드론운용 전문인력 양성과정, 미용사(네일)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애견스타일리스트, 초급 사무관리 양성과정, 제과제빵과정, 헤어, 피부미용 양성과정 등	여성가족부
직업역량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취업 연계 이전의 기초기술습득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전국 8개 꿈드림센터(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 대전)) •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1주)→자립동기 부여(2주)→기초기술훈련(4주)→직장체험(3개월)→전문직업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 * 기초기술훈련, 직장체험 기간 동안 검정고시 대비반, 자격증취득반 병행가능	여성가족부
취업성공 패키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의욕·능력 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종합적 취업지원체계 •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I (만18~6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취업성공패키지 II (만18세~64세)	고용노동부
청년취업 인턴제	•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고용노동부

출처: 꿈드림센터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user/sub05_3_1.asp에서 2018. 8. 10. 인출

② 한계점 및 개선방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의 가장 큰 한계점은 학교 안·밖의 연계 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학교를 떠나는 순간 이들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편이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이유와 배경에 의해 학교를 그만둔다. 이 때문에, 이들의 진로목표와 유형도 다양한데 비해,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로 인해 이들이 진로실습 기회나 고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비행 경험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자신의 진로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패배자나 실패자가 아니며, 진로목표와 유형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들을 위한 진로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방안

1)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앞서 살펴본 소외계층 집단별 세부유형과 현황, 특성 및 진로요구,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 교육 한계점 및 개선방안 등을 토대로 여기에서는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방안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과제를 제안하기 전에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4대 기본 방향

1. 선별지원 방식 → 통합지원 방식의 진로교육 지원
 2. 결핍에 대한 지원 → 잠재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진로교육
 3. 기술·기능교육 중심의 진로교육 → 진로자립 역량 강화 진로교육
 4.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 지식전달 → 학습자 주도의 활동참여 중심 진로교육
-

첫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은 주로 그들을 일반학생과 분리하여 선별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 일반인들에 비해 우선되고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선별 지원 방식이 지닌 장점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선별적 지원방식은 낙인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진로지원은 일반 학생과 동일한 틀 내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되,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선별 지원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은 주로 이들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각자의 강점(strength)을 가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일반 학생보다 부족하거나 결핍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잠재역량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은 이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잠재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은 주로 단기간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단순 기술·기능교육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 중심의 직업훈련 교육은 이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은 이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소외계층 대상 진로교육이 주로 교수자 주도의 일방적 지식 전달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

습자의 참여와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외계층 진로교육 담당자들의 교수학습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2) 소외계층 진로교육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방안

여기에서는 기존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콘텐츠나 교수방법, 교수자의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진로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국한하여 관련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①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소외계층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주들이 이들의 고용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취업은 쉽지 않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라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비행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이들의 진로설계나 진로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일반인들의 고정관념과 차별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기업 및 사업장,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개선하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¹³⁾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과거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반면, 이주배경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관련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주배경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은 보편적인 차별금지교육이나 인권교육의 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분리교육은 소외계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학생과 소외계층 학생이 함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일반 학부모와 소외계층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앞서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들이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들이 지닌 잠재역량과 강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소외계층 집단 내 잠재역량과 강점을 발휘하여 진로개발 및 취업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소외계층 대상 진로교육 지원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소외계층의 자립에 긍정적 효

1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2018. 8.17. 인출.

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진로교육 지원이 취업으로까지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현재에도 이들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처럼 이들의 고용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경우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지원은 가시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률 중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연령과(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¹⁴⁾) 장애유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¹⁵⁾), 성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¹⁶⁾)에 따른 것이 대표적인 반면, 피부색, 학력, 출신민족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이주배경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피부색, 출신민족, 학력에 따른 고용상 차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법 제정 외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고용을 꺼리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소외계층 취업 제고를 위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사업장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②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이들의 성인기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미래 삶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민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내에서 경제적 자립 방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학교와 진로와 관련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관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학교 내 자원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요구와 진로결정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공공민관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는 소외계층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처 발굴을 위한 민관기관 네트워크, 취업연계 사업장 확보 등을 위한 업무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소외계층 집단별로 진로교육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③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외계층 진로교육은 단기적, 일회성 성격의 교육이 주를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것은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발달단계별

1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2018. 8.17. 인출.

1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서 2018. 8.17. 인출.

1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2018. 8.17. 인출.

진로교육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소외계층 진로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들의 진로교육 목표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진로탐색과 진로체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역사회 내의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한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기적, 이벤트성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특성과 진로요구를 고려한 진로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진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학생들의 취업에 두기보다는 이들의 취업 후 적응과 안정적 정착에 두고 취업 후의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성장지원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하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부처 간 협력
특수교육대상학생	• 취업이 가능한 경증장애학생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협력 강화를 통해 취업연계지원 • 취업이 불가능한 중증장애학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형태의 보호 및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지원을 위한 기존 지원 기관간의 역할 분담 논의 필요
이주배경청소년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지원 - 아르바이트, 취업 등을 위한 비자변경 필요(법무부) - 보건증 발급 불가로 진로체험 불가능 문제 해결 필요(보건복지부) • 탈북학생 및 제3국 출생 학생 지원의 경우,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과의 협력 필요 • 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단계별 성장지원 정책 논의를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간 협력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목표수립 및 지원 방안 논의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간 업무 협의 • 비행경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 - 법무부(소년원, 보호관찰소, 꿈키움센터 등), 교육부 간 협력

참 고 문 헌

[국내 자료]

- 교육부(2018. 7. 2.). “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늘린다.” 교육부 보도자료.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4697&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4&s=moe&m=0503&opType=N>에서 2018. 8. 15. 인출.
-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2018.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 교육부 내부 문서.
- 관계부처합동(2018.3.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48에서 2018년 8월 10일 인출.
- 교육부(2018. 2.).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3&boardSeq=7345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09&opType=N>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통계. 아산시: 국립특수교육원.
-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통계. 아산시: 국립특수교육원.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지도) 매뉴얼.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부(2017. 12.).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9&boardSeq=7309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08&opType=N>에서 2018. 8. 15. 인출.
- 교육부(2017. 8. 31.). 2017년 교육기본통계 발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1941&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 교육부(2017. 3. 24.).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발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825&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30209&opType=N>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통계. 아산시: 국립특수교육원.
- 교육부(2016. 4. 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279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48&s=moe&m=0503&opType=N>에서 2018년 6월 8일 인출.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a).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http://www.career.go.kr/cnet/epub/selection/book/solution_s1.pdf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b). 탈북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http://www.career.go.kr/cnet/epub/selection/book/solution_s3.pdf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c).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http://www.career.go.kr/cnet/epub/selection/book/solution_s2.pdf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d). 3개 집단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집단 진로지도 프로그램. http://www.career.go.kr/cnet/epub/selection/book/solution_s5.pdf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통계. 아산시: 국립특수교육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015. 1. 6.).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장애학생 취업·창업 교육 강화 방안. 교육부 내부문서.

교육부(2013. 8.).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9&boardSeq=50466&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3&s=moe&m=030208&opType=N>에서 2018. 8. 15. 인출.

교육과학기술부(2009. 12.).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9&boardSeq=4825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9&s=moe&m=030208&opType=N>에서 2018. 8. 15. 인출.

교육과학기술부(2008. 8.).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9&boardSeq=1207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6&s=moe&m=030208&opType=N>에서 2018. 8. 15. 인출.

김요섭(2014). 일반 고등학교 재학 장애학생 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학습장애연구, 11(3), 23-44.

남북하나재단(2016). 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2017.6.2.). 2017년 탈북청소년 진학상담 및 학과박람회 안내문.

https://www.koreahana.or.kr/notice/notice_view.jsp?sc_searchCnd=title&sc_searchWrd=%EB%B0%95%EB%9E%8C%ED%9A%8C&pk_seq=92122&page=1에서 2018년 5월 14일 인출.

박성훈, 김지영, 조영오, 김현정, 황여정, 김정숙, 배상균, 고나영(2017).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영근, 윤형진 (2015).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실행방안에 관한 교사인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3), 213-233.

박혜준(2008).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 가족과 문화, 20(1), 99-129.

박희찬(2016).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의 변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2), 59-81.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2018.3.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XSBFITmfFVuZLJ27wocSwifs.mogef21?mid=plc503&bbtSn=704771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연보라(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V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혜영, 박현진, 공윤정, 김범구, 양대희, 최영희, 성벼리, 이정실(2012). 학업중단청소년 유형별 상담 매뉴얼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진석(2014).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시민성 탐색. 시민교육연구, 46(4), 79-105.

이혜영, 손홍숙, 김일혁, 김미숙(2012).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영, 이정화, 김미숙(2013).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인천광역시교육청(2014a). 탈북 중학생 진로·직업교육 매뉴얼.
<https://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에서 2018년 5월 14일 인출.

인천광역시교육청(2014b). 탈북 고등학생 직업교육 매뉴얼.
<https://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에서 2018년 5월 14일 인출.

정민호, 김삼섭 (2010). 특수학교의 학교기업 운영에 대한 장애유형별 특수교육교원의 인식비교. 특수교육 연구, 17(1), 101-127.

정수정, 최순종(2015).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청소년연구, 26(3), 77-101.

최경자, 곽종문, 채경희, 박찬수(201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7.8.2.). 2017년 탈북학생 주요통계.
<https://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에서 2018년 8월 5일 인출.

통일부(2018. 4. 2.).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수립(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http://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004&mcode=view&cntId=54402&category=&pageIdx=에서 2018년 5월 14일 인출.

행정안전부(2017.11.16.).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http://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14&nttId=60528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홍정숙(2015).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0(2), 277-305.

[법령 자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추진 사례

임 정 완

(수원시청 교육정책팀장)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추진 사례


 수 원 시

contents



- I 수원시 현황
- II 추진근거
- III 주요추진사업
- IV 맺음말





학교 밖 청소년 발생현황

구분	초등		중등		고등 (일반고)					합계
	유예	면제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면제	
2015	132	360	280	0	561	5	1	0	0	1,339
2016	154	339	189	104	465	2	3	0	0	1,256
2017	134	380	165	123	560	6	1	2	0	1,371

* 자료출처: 교육통계연구센터, 시도별 행정구별 학생변동



학교밖 지원사업(꿈드림)추진

● 추진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 05. 28)
-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2015. 04. 03)

“꿈드림”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청소년들의 공간입니다.



추진성과



□ 추진 성과 (2018. 8. 31. 기준)

- 사례 관리 수: 총 816명
-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실인원 기준)

학업 복귀				사회진입			
합계	복교 (학교재적 응)	검정고시 합격	대학 진학	취업 (인턴십)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자기 계발
81	9 (숙려)	61 (전체:49, 부분:12)	4	2	1	2	16

※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중복 인원 : 14명

세부실적



□ 사례관리자수 : 816명

□ 세부실적

총 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3,353 + 홍보 5,479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업중단 숙려상담	전화 사이버	검정고시 영어특강 입시설명회	진로멘토링	취업지원
	787	53	48	395	1,072	225	215
	자립지원						
	복지지원 (직접지원비)	기소유예 청소년 지원	소양교육 (근로, 법)	문화체험	동아리 활동	성장캠프	
	10	51	12	92	250	27	
홍보					건강증진 서비스		
기관 배포		아웃리치		매체홍보	116		
540		4,885		54			

운영방법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오면!



★ 초기 면담



★ 신청서 작성



★ 담임선생님 배정



★ 담임선생님과 만남



★ 목표 설정



★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 진로, 학습
- 대인관계
- 우울·불안 등 정서문제
- 가족상담

신청

접수상담
1회기

개인 상담
12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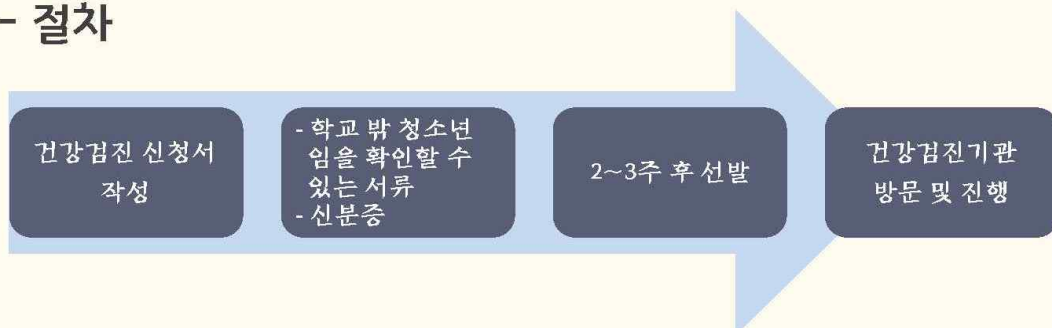
◆ 학업중단숙려상담

- 대 상 :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
- 내 용 : 2주간 4번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및 복교에 대해 심사 숙고하게 됨.
- 절 차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대 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대상자와 중복되지 않은 경우)
- 기본검진 : 문진 및 진찰,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C형 간염검사, 구강검사 등
- 절차





◆ 복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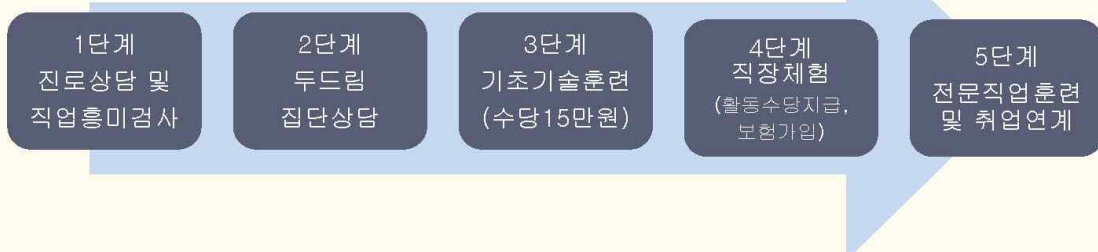
- 대상 : 경기도 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교육비(검정고시 학원비, 직업훈련학원비)
의료비(병원 진료비, 입원비 등)
청소년지원비(생활용품 및 긴급 지원비 등)
- 절차 : 회의를 통해 지원 적절성 판정 후 지급



◆ 직업역량강화

개인별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취업 전 교육 및 훈련을 단계별로 제공하여 자립동기 및 취업의지를 강화함

- 대상: 15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 절차



◆ 인턴십

- 대 상 : 직무실습 및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
- 내 용 : 근로기초교육, 사업체 방문 및 인턴십 협약서 작성, 직장체험 참여, 인턴십 수당 지급
- 절 차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



◆ 직업체험

진로, 직업을 탐색하는 학교 밖 청소년

- 진로직업특강 운영, 직업체험장 견학 및 실습
- 내일이룸학교, 노동부 프로그램 연계(취업성공패키지)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



◆ 집단상담

- 학업동기강화 집단상담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 자립동기강화 집단상담 “두드림 (Do Dream)”

학업동기강화 집단상담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 동아리

- 밴드 “Reverse”
- 댄스 “With”
- 기획동아리 “Poc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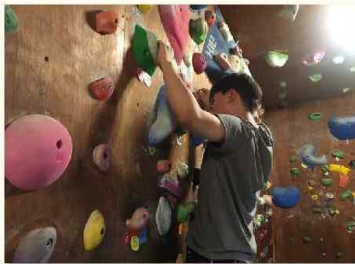
밴드동아리 “Reverse”





◆ 문화체험

문화 · 예술, 창의과학, 어촌체험, 봉사활동, 공연관람 등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체험활동



◆ 학습지원 소개

- 검정고시 대비 상시반, 1:1 멘토링, 수준별 영어특강



[검정고시 상시반]

- * 화~ 금,
14:00~16:00
- * 학습멘토와
질의응답식 학습



[1:1 멘토링]

- * 멘토 선생님과 개별
수업
- * 1:1 맞춤 심화학습
- * 주 1회, 2시간 수업



[인터넷 강의]

- * 시간 자율
- * 상시 인강 시청
- * 과목별 인터넷
강의 제공



[영어특강]

- * 수준별 영어특강
- * 주 2회, 1시간
수업 진행

★ 꾸준한 출석 후
참여 가능!

◆ 성장캠프

- 자연 속 건강한 놀이활동, 친목도모 및 자기성장
- 재능기부, 자원봉사 캠프 등
- 시 기 : 연중 2회 진행



◆ 해밀축제

- 졸업식 및 1년 활동 마무리, 함께하는 축제!
- 준비위원회 구성, 컨셉이 있는 축제 구상 예정
- 시 기 : 12월 초



유관기관 연계



기관	실적(명)		비고
	In	Out	
교육청(7곳)	162		경기도, 서울, 세종, 전남, 전북, 강원, 충남
경찰서(6곳)	103		수원(남부, 중부, 서부) 안양동안, 대전중부, 화성동부
검찰청(1곳)	14		기소유예프로그램
학교(17곳)	53		학업중단속려제 상담 (140건)
수원 관내 경찰서 (남부, 중부, 서부)	92 (26, 36, 30)		-남부, 중부, 서부 : 아웃리치 2회 (2월, 6월)
			-남부: 직업체험 및 교육 (5월, 3회기)

유관기관 연계



기관	실적(명)		비고
	In	Out	
수원청소년쉼터(남자, 여자)	15	2	진로 멘토링 13명(93건)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7		
아동보호전문기관(수원, 용인)	1	1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3	취업성공패키지 연결
수원시자살예방센터		1	심리지원비 지원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5	15	청소년동반자상담
의왕시청소년자립생활관		1	

유관기관 연계



기관		실적(명)		비고
		In	Out	
윤슬지역아동센터			1	멘토링
수원청소년희망등대센터			1	진학상담
한국직업전문학교			1	조리사 과정
권선청소년수련관			5	어린이날 행사 밴드 공연
대안 학교	수원칠보산(중등)	27		건강검진 신청
	소중한 학교	1		심리상담 지원
	동림자유학교	37		건강검진 신청

유관기관 홍보



기관		내용
수원 관내 주민센터		대상자 발굴 협조 안내 공문 발송(시청)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상자 발굴 협조 안내 공문 발송(시청) 방문홍보(8.31)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업소개 및 홍보(9.13)
경기도의료원		연계 협력 미팅(7.18)
와이제이검정고시학원		발굴 협력 미팅(8.3)
대안 학교	수원칠보산(중등)	연계 협력 미팅(8.17) 집단상담프로그램 진행(10월 예정)
	수원칠보산(초등)	연계 협력 미팅(9.18) 연계프로그램 논의
	소중한 학교	연계 협력 미팅(8.9) 집단상담프로그램, 개인상담 진행 중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토론문’

- 패널1 김 현 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패널2 금 미 숙(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 패널3 선 혜 연(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 패널4 김 민 환(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방안 ‘토론문’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발표문은 소외계층 청소년 진로교육 전반의 상황을 잘 정리하고 있다. 발표자의 지적대로 지금까지는 소외계층 청소년 진로교육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각 부문별로 담당부처 또는 부서 또는 지자체별로 진로교육 사업들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진로교육정책이라는 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그 동안은 진학교육에 치우쳐왔던 진로교육이 자리를 잡아가는 데 치중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진로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하지만 2019년은 다양한 요구를 가진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이 될 듯싶다. 진로교육법에도 제 1,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도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정책이 언급은 되어 있지만 구체화되지는 못했던 반면, 2019년 하반기에는 소외계층 청소년 진로교육지원을 위한 R&D 사업이 추진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것으로 전망이다. 2019년 11월 16일 교육부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진로교육법도 개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발표자는 특수교육대상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 및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그들의 특성과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를 진단하고, 대상별로 추진되는 교육정책과 진로교육정책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상별로 진로교육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것으로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정책의 큰 그림이 그려졌고, 이제부터는 덧칠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쟁점이 될 만한 것들도 많고, 통합과 연계의 요점을 찾아야 하는 쉽지 않은 지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발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외계층 청소년이 갖는 다양성이 매우 크고, 관련된 부처도 다양하다. 협업은 늘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제시되지만, 협업이 가능한 구조만 만들어도 정책은 큰 성과를 이룰 것이다.

그 밖에 발표자가 제시한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자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통합교육과 선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통합교육은 한국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 방향이며, 진로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는 진로교육은 경증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발표문에 제시된 ‘취업이 불가능한 중증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진로교육보다는 특수교육의 개선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장애유형에 따라서 취업의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경증/중증’ 기준보다는 장애유형별 진로교육 대상 선별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도입국이라는 구분은 진로교육의 대상을 특정하는 기준으로서 모호한 점이 있다. 대체로 2세에 해당하는 연령(대략

적으로 12세 이전 입국자나 한국출생자)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진로교육을 추진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의 교육제도를 고려할 때 중등교육 학령기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중도입국청소년이라도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그 해당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이나 제3국 출생의 경우에도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별도의 진로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학교부적응 학생의 경우에는 기존의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되며,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부터의 취약한 연계는 진로교육 차원에서 풀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wee센터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로 풀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학교밖 청소년은 이행경로가 다양하고, 특성도 다양하며,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이 있어 정책추진이 용이하지 않다. 우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대안학교에서 진로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전문인력의 충원이 어렵다면, 적절한 프로그램이라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단순히 직업체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서 진로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매우 폭넓은 의미의 활동이어야 한다.

둘째,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결핍에 대한 보상교육차원이 아닌 이들의 강점을 살리는 차원이어야 하고, 또 단순 기능 중심의 직업훈련이 아닌 잠재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수자 주도의 교육에서 학습자 참여적이고 주도적인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이 또한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며, 진로교육의 문제만도 아닌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진로교육이 체험 중심으로 실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학습자 참여적인 요소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동기를 상실하였거나 무기력감에 빠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된 그래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참여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체험이나 직업훈련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직업교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외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제대로 작동하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반적인 직업교육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는 소외계층 진로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진로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해소의 문제나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문제 역시 진로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차별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제고 노력이 진로교육을 포함하여 영역별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계층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고정관념 해소와 인식개선의 문제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인 인권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진로교육을 위한 부처간 협업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들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필요하지만, 고용을 꺼리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 보다는 사업장의 고용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강화하는 편이 나을 듯싶다.

넷째, 소외계층 진로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 두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지역사회자의 활용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소외계층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발표자의 의견대로 대상별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좋지만, 기존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잘 활용하는 것이 일단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다양한 진로교육 네트워크와 인프라는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공공의 체험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이들에게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립할 필요도 있겠지만, 통합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진로교육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 자원을 확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진로교육의 경험이 가장 잘 축적되어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와의 연계도 필요하지만, 진로직업체험센터의 경우에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즉 특수교육전문가나 다문화교육전문가 또는 기관(다문화 예비학교, 레인보우스쿨,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기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나 소년원 등의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역에서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지난 수년간 축적해 온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연계체제가 개정될 진로교육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길 기대한다.

끝으로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싶다. 대상별로 별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은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 밖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지역사회 전문가간 네트워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관련된 연수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소모임활동, 워크숍, 사례공유 중심의 연수가 가장 효과적이다. 네트워크 자체가 전문인력 양성의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특수교육교사나 다문화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진로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고, 거꾸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에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진로교육 연수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진로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육을 지향한다면,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 진로교육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필수과목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상담사 또는 상담교사 중에서 대상별 진로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정글에서는 조그만한 핸디캡-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름'이라고 인식하기는 하지만-조차도 생존에 극히 불리하다. 그러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교육에 더 힘을 쏟아야 하지만,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며, 장인들조차도 생존하기 버거운 시대이니 조금 더 개선된 진로교육, 진로체험, 직업훈련 정도로는 악순환(교육훈련 효과의 부진 또는 노동시장 진입 실패-부정적 인식의 고착)이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진로교육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것이어야 한다. 포용하고, 공생하는 사회 구현의 성패가 소외계층 청소년 진로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방안 ‘토론문’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과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방안 -

금미숙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진로교육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을 통해 직업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21조). 특수교육대상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진로와 직업교육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또한 이 법률을 근거로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교육을 통해 졸업 이후 성인기 독립생활로의 성공적 전환 기반을 마련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입안·제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특수교육 분야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진로교육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도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논의 또한 그 일환이라 생각되며, 포용사회로 나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추가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진로·직업교육은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기점으로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일반교육 분야에서 진로교육 시행의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을 2015년 6월의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본다면,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그 이전부터 학령기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고진감래의 과정을 지나왔다.

법 시행 후 10년이 지난 현재, 중등과정이 설치된 모든 특수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설비를 갖추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직업재활훈련과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학교**는 '09년 73개교에서 '18년 143개교로 증가하였다. 앞으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을 실행하면서 진로교육 집중학기(년) 도입, 자유학년제 확대, 실무체험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실 조성 등 진로·직업교육 기반이 더욱 확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되어 법령에서 정한 장애영역(시각·청각·지적장애, 지체장애·정서·행동장애·자폐성장애·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건강장애·발달지체 등)에 해당하는 사람(특수교육법 15조)

** 전체 특수학교 수: ('09) 150개교, ('18) 175개교

충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교육의 정체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특수교육 현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중도·중복화 추세로 ‘교육’과 ‘돌봄’이 공존하고, 진로직업교육 담당자는 ‘취업’의 무게까지 안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18년 4월에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협업하여 교육·복지·고용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상설협의체를 가시화하였다. 정례 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와 기관이 고유 역할을 확인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원스톱 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직업평가는 3개 부처(기관)가 함께 담당하고, 학교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직업교육을, 고용지원 및 졸업·취업 후 관리는 고용부와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특수교사는 학생의 ‘취업’을 위한 단순 직무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진로와 자립에 필요한 기초 역량’, 이를테면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향상시키는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의 졸업자 대비 진학률은 36.7%(고교+전공과), 취업률은 19.6%로 조사된 바 전년보다 약 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들의 일자리는 더욱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취업 현실은 일반인도 하기 싫어하는 힘든 직종이 다수이고 작업환경도 열악한 소규모 업체에 고용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어렵게 고용이 되었다가도 조기에 파기되거나, 보호자가 자녀의 취업을 꺼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생임에도 가정에서 ‘보호’로 그치고 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교육 이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취업 직종 개발이 필요하며, 이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학교와 유관기관 간 협력은 물론 사회 전반의 장애인 인식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금년 7월,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확대방안('18. 7.)을 마련하고, 대학 내 일자리, 지역사회 내 일자리, 재정지원 일자리 등 장애인 고용 수요가 있는 다양한 현장의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학 내 일자리는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취업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점차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통해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가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수하지 않을 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고용률 초과 시 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일자리 확충과 진로 개척을 위해 부처 내, 부처 간 협력으로 범국민 대상 집중 홍보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일자리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취업이 곤란한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이, 취업이 가능한 학생 위주로 편중되었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았다. 이는 물론 직업인으로서의 자립으로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전공과 졸업 이후 진학·취업을 하지 못한 43.7%(18)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짐이 되거나 시설로 돌아가 사회와 분리된 채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특별한 작업환경을 마련해 주고,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 배려의 고용형태인 지원고용이나 보호고용을 확대하며, 주·단기 보호센터 프로그램과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나 비진학·미취업 대상자 증가와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교육·복지·고용 통합지원 체계인 지역 중심 ‘상설협의체’가 안착된다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장애인고용공단지사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공공·민간 직업재활시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진로교육 협의 시스템 구축’과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부처 간, 유관기관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여서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의 중심 내용이었고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실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과 직결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를 수행하고자 금년에 ‘장애학생 진로평생교육팀’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이루기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교육 지원체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장애학생의 진로는 진학이나 직업발달만으로 규정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학교교육 이후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제약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령기와 성인기 생애 주기를 관통하는, 이를테면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 이후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의 전환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여기에 부처 간 협력은 우리 사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 국정과제 51-2(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강화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추진 사례 ‘토론문’

선헤연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점차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이들을 위한 교육적 서비스 및 포용적 진로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포럼에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의 추진 사례를 소개한 수원시청 발표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포용적 진로교육의 실재를 확인하고 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까지는 최소한 졸업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와 달리, 최근 점차 늘어나는 학교밖 청소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협력을 시도한 지자체의 실천 사례에 대한 소감과 이를 기초로 향후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학교밖 지원사업(꿈드림)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 중 학업을 유예/면제한 300여명과 약 500여명의 자퇴한 고등학생들을 포함하여 연간 약 8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밖 청소년이 되고 있는 지역내 문제에 대한 숙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 약 800여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60명의 청소년들을 학업으로 복귀시키거나 사회 진입을 성공적으로 조력한 의미있는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자체 학교밖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부분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다. 학교밖 지원사업은 크게 상담 및 학업지원 서비스와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자립지원 서비스의 세 가지 큰 축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활동이 구성되어 있고, 각 서비스별 활동의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다수의 청소년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사업의 성과에 기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재적 시점에서는 생활에서의 자립이고 미래적 시점에서는 진로의 문제로 귀결된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중요한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해 개인 및 집단 상담,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매체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학교

밖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기본적 하드웨어로서의 체계적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둘째, 사업에 참여하는 다수의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관리 및 사업에 대한 홍보의 측면에서 그 강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학교밖 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서비스 대상자의 확보와 그들에 대한 사례관리이며, 이 부분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풀어야 할 가장 큰 난제가 된다. 시간 및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며, 또한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청소년들도 그들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혹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상담을 포함한 상담 지원 서비스의 실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교밖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성과는 이러한 홍보 및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한 노력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셋째, 발표해주신 학교밖 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지역사회의 연계를 실제로 구축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내 책무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교내 청소년들과는 다른,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어려움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실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지만 단일 교육기관이나 복지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편,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순간 그동안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던 수많은 교육적 혜택을 잃게 되는데 여전히 이들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국민으로서의 교육적 혜택을 지자체의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적 발달과 향후 효과적인 사회 진입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기초로 하여 향후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밖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이해에 기초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 ‘학교도 안다니는 말썽꾸러기들’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사실상 이들이 학교 밖으로 가게 된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로 학교를 떠나게 되거나 개인적 혹은 가정적 문제로 자의 반, 타의 반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청소년들도 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급별 학업중단의 이유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학교밖 청소년’들은 하나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이름하에 모두에게 동일한 접근방식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과적일 수 있다.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유에 대한 다양한 심층적 연구들은 진행하고 이러한 각 이유에 적합한 효과적인 상담 방법이나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보완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의 권한으로 2~3주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6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일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동기는 매우 다를 수 있으나 이들 모두가 가장 큰 고민으로 보고하는 것이 학교를 떠나고 난 후의 자신의 진로와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다. 즉, 학업숙려제의 상담은 단순히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상담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학생들의 생애개발적 측면에서 보다 폭넓은 진로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학업중단숙려상담은 공교육체계에 남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서 머무르기보다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어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자립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이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나가기로 결정한 학생들에게는 본 발표자료에서와 같이 성공적인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이나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학생의 진로계획을 함께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다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진로개발에 대한 교육적 이해가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나라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기초가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추진 사례 ‘토론문’

김민환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 진로교육 소외계층의 범주

- 「진로교육법」제5조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 예체능 계열 특기학생이나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 등이 개인적인 사정, 환경적 여건 등에 따라 진로장벽을 접하는 학생
- 기타 진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나 관련 정보나 지식, 상담 등을 쉽게 받기 어려운 상황의 학생·청소년 등

〈 소외계층 관련 법적 정의 〉

- 「진로교육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 「가족친화법」: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 「문화예술진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문화소외계층
- 「고용정책기본법」: (취업취약계층)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 「보건의료기본법」: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
-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노인

□ 법적 교육기회 보장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세계 속의 학교 밖 청소년



□ 경남교육청 다문화 현황(2018)

구분	초	중	고	각종학교	합계
전체 학교 수	521	272	193	16	1,002
다문화학생 재학 학교 수	505	234	154	2	895
전체 학생 수	191,016	90,851	102,461	1,971	386,299
다문화학생 수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	7,741 (4.05%)	1,061 (1.17%)	657 (0.64%)	2 (0.1%)	9,461 (2.45%)

□ 경남교육청 다문화 유형별 학생 수(2018)

다문화가정 유형		초	중	고	각종학교	합계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내출생	7,116	869	587	2	8,574
	중도입국	198	94	50	0	342
외국인가정 자녀		427	98	20	0	545
합계		7,741	1,061	657	2	9,461

□ 경남교육청 다문화 주요 사업 현황

1. 교육과정 중심 다문화교육 확대

- ❖ 다문화학생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중심의 다문화교육을 넘어, 모든 학생과 모든 학교로 다문화교육의 범위를 적극 확장 (*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 가. 교과수업에 다문화교육 반영
- 나.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내실화
- 다. 다문화 수업모델 개발 연구학교 운영
- 라.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 마. 다문화이해 학부모 역량 강화

2.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내실화

- ❖ 가정 환경 특수성으로 인한 초기발달·학업 측면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

- 가. 다문화 유치원 운영
- 나.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 다.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
- 라. 다문화학생 맞춤형교육 지원
- 마. 대학생 멘토링 운영 지원
- 바. 다문화학생 진로·적성 계발 교육
- 사. 다문화언어강사 운영
- 아. 중도입국학생 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운영

3.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강화

- ❖ 지역·학교 단위의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체제 확대 및 강화

- 가.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나.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다. 다문화교육 지원단 및 교사 연구회 운영
- 라. 지역 다문화축제 학예행사 참여
- 마. 다문화학생·북한이탈주민 등 학력심의위원회
- 바. 다문화 보조금 사업 운영 지원

□ 다문화 학생의 가정 생성 배경(국제 결혼외국인 가정), 출생지(국내국외), 학교급 등에 따른 특성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내출생 자녀	- 대부분이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고 한국인 정체성도 장하나, 일부는 필요한 문장• 어휘• 개념 이해 등에 어려움을 겪음 - 소득수준별 비교 시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일반가정 학생과 차이가 없으나, 낮은 경우 다수 항목(학교성적, 적응, 성장 발달 등)에서 낮음 - 사춘기에 진입함에 따라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 - 정서적인 지원 요구 증대
	중도입국 자녀	- 새로운 가족과 한국 문화에 적응, 정체성 혼란, 무기력 등 심리적 문제를 겪음(귀화 또는 귀국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 한국어 역량 부족으로 공교육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외국인가정		중국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포함하며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 등이 유입. 일부는 전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움 (※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라 교육기회 제공)

※ 탈북학생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면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지만 국내출생이면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학생 분류 기준은 행정 편의상 구분할 뿐 학생을 대상으로 호칭화 하지 않는다.

□ 경남교육청 탈북학생 현황

○ 2017년 탈북학생 현황

*() 제3국출생 학생수

구분	학교수				학생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경남	23	23	25	71	43(25)	41(30)	31(19)	11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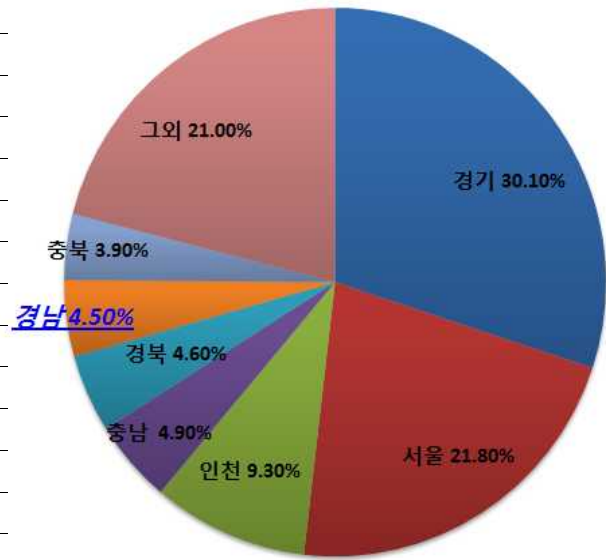
○ 연도별 탈북학생 현황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통계자료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재학인원(명)	83	94	103	111	115

※ 2017년 시·도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2017. 4월 기준)

구분	학생수				비율
	초	중	고	계	
서울	206	137	211	554	21.8%
부산	21	36	36	93	3.7%
대구	28	19	16	63	2.5%
인천	91	74	70	235	9.3%
광주	34	34	20	88	3.5%
대전	26	20	2	48	1.9%
울산	17	15	13	45	1.8%
세종	4	3	2	9	0.4%
경기	319	199	246	764	30.1%
강원	21	21	7	49	1.9%
충북	51	28	20	99	3.9%
충남	49	38	39	126	4.9%
전북	30	14	12	56	2.2%
전남	24	14	13	51	2.0%
경북	52	25	39	116	4.6%
경남	43	41	31	115	4.5%
제주	11	8	8	27	1.1%
계	1,027	726	785	2,538	100%



□ 소외계층 진로교육은 블랙스완 VS 회색 코뿔소 ?

MEMO

MEMO

MEMO

MEMO

MEMO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

인 쇄 2018년 11월 16일

발 행 2018년 11월 1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 415-2114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